

# 위드 코로나 시대 시험대 오를 '총장축제'

### 베란다·텐트·자동차 등 참신한 비대면 프로그램 눈길 사전예약, 출입구 분리 배치...방역수칙 준수에 만전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이정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제18회 추억의 총장축제가 '힐링'을 주제로 오는 11월3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동구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코로나 일상시대 모범이 되는 안전한 총장축제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장축제는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광장 및 부설주차장, 신서석로, 총장로·금남로 지하상가, 남광주시장 등 동구 일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기존 총장로 일대에서만 진행됐던 축제를

관내 곳곳으로 분산시켰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6개 분야, 18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면 프로그램은 30%로 축소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70%로 확대했다.

'개막식'부터 과감히 탈바꿈을 시도했다. 인파가 물리지 않도록 기존의 대형 무대를 없애고,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마련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문화전당 내 5·18민주광장에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장 페어데이' 또한 기존 참여·관객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분산형으로 꾸며진다. 소수의 인원만이 차량에 탑승해 금남로 일대 이동구간에서 추억의 댄스, 음악 등 화려한 차량 페어데이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총장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추억의 테마거리'는 기존 50m에서 70m로 확장된다. 시간별 입장 인원수 제한과 방역 시간 준수 및 입·퇴장 시간 안내 등을 통해 관람객 안전을 위한 철저한 통제 속 운영된다.

온라인 토크쇼 중심으로 진행될 '어제인 1983 타이거즈' 또한 눈여겨 볼 만한 행사다. 타이거즈 첫 우승을 통해 당시 광주에 용기와 즐거움을 선사한 전설적인 선수들이 초청돼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되새겨본다.

베란다, 텐트, 자동차 안 등 방역통제가 일상처럼 이뤄지는 공간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즐기는 '총장 베란다 콘서트' ▲텐트 속 공연 프로그램 '총장 텐트 공연예술제' ▲자동차 안에서 즐기는 '드라이브 인 추억 콘서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추억의 소울푸드' ▲무등산과 광주 도심 역사문화관광 코스를 탐방하는

'필름카메라 in 광주여행' 등의 비대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시민참여형 '총장축제 마을문화제'도 열린다. 마을 곳곳에 지역문화예술 공연팀이 찾아가 버스킹 공연을 하며 주민들과 추억을 나누고, 이는 유튜브 방송으로도 송출된다.

동구는 ▲단체별 관람객 인원 제한 ▲방역 운영부스 설치 ▲사전예약제 시행 ▲관람객과 공연팀 입·퇴장 분리 운영 ▲출입·발열 체크 등 별도의 축제 방역 매뉴얼을 마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대폭 확충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사 운영에 주력한다.

임택 구청장은 "올해 총장축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여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용적이고 도전적인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인천	18/26	서울	17/28	대전	18/27	강릉	18/27
전주	18/28	광주	19/28	대구	20/27	부산	22/26
목포	20/27	여수	21/26	제주	22/26	충청	18/27
충청	18/27	경상	18/27	제주	22/26	제주	22/26

▶지역 강수량(%)

광주	20-20	목포	20-20	순천	60-20	여수	60-20
----	-------	----	-------	----	-------	----	-------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7:35	01:14
20:48	12:44	
여수	01:50	09:02
16:43	---	---

▶날씨안내 : 국민일보1131

### 남구, 고교생 등 장학생 공개 선발

광주 남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매진 중인 학생들을 남구 장학생으로 공개 선발한다.

27일 제2회 남구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서류 접수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15명과 대학생 31명, 학교 밖 청소년 3명 등 49명이며 일반 장학생과 행복나눔 장학생, 특별 장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4개 선발 유형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장학금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가 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장학생의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고등학교 1학기 성적 전 과목 평균 5등급 이내(대학생 1학기 평균학점 2.75 이상)이어야 한다. /조태훈기자



맑고 깨끗한 광주천을... 29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천 두물머리나루 일원에서 이용성 광주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 서대석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구제길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장 및 회원들이 '맑고 깨끗한 푸른 광주'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흥기난동 대책 강구"

#### 광주고검·지검 방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29일 취임 후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했다.

이날 김 총장은 조종태 광주고검장·박찬호 광주지검장 등과 면담하고 검사·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장은 이날 "고성하는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우리 직원이 장검 테러로 큰 피해를 봐 위로하려고 왔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건 수사한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까지 하는 '직관'이 제한되고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지적에 "직관으로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필요하면 공판도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박성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판검사 한 사람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는 것은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직권 제한 방침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 광주고검 청사 흥기난동 사건 발생 후 청사 안전대책에 대해 "전국 방호청 회의의 소집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검복 등 방어 장비 확충, 금속탐지기 확대 등을 신경 쓰고 근무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면서 "갈수록 사회가 흉포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지난 달 광주고검 청사 흥기 난동을 제압하다가 중상을 입은 직원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김동수기자

## '2021 제4회 장애인식전환 수기' 공모 개최

####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크리에이티브스 주최

'2021년도 제4회 장애인식전환 수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29일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과 (주)

크리에이티브스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인권(인권감수성·인식개선) ▲직업(직업재활·체험) ▲일상(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 직장생활, 여행, 가족, 친구 등) ▲자원봉사(장애인과의 함께하는 활동, 장애인 당사자 자원활동) ▲직업을 통한 장애

인식지리 일화 및 성공사례 등 5개 주제로 작품을 모집한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기는 자유 형식으로 A4용지 6장 분량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심사점수에 따라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1편), 최우수상 50만원(2편), 우수상 30만원(3편), 입선 20만원(5편), 참가상금 10만원(11편)이 주어진다.

김갑주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 고문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이 출품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방법은 어둠속의 빛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면 되고, 응모작과 함께 이메일(kjsisag91530@naver.com)로 보낸 후 사무국(062-973-2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늘푸른수목장의 장점 ■

- 1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3 재계약이 필요없이 영구사용 가능합니다.
- 4 온 가족이 산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푸른수목장** 수목장·자연장 **062) 412-6183**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